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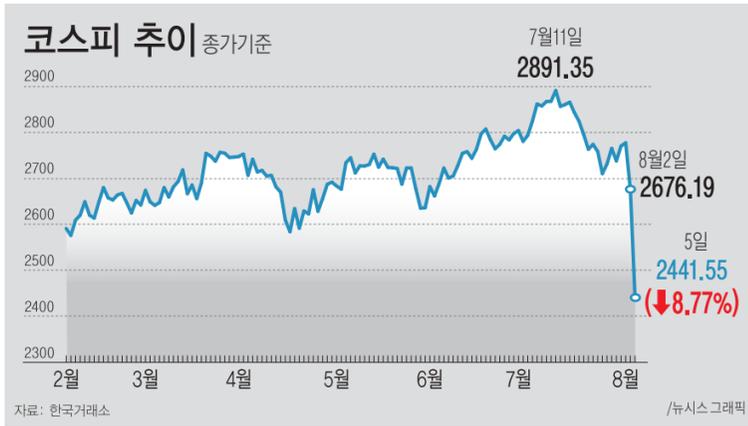
빛투족 '반대매매' 쏟아지나...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

국내 증시 급락에 증거금 부족 반대매매 증가시 지수 하방 압력 "경기침체 우려 등 변동성 확대"

국내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빛투(빛내서 투자)족'들의 반대매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매매가 급증할 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89억92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6월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인 67억1000만원보다 약 20억원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 22일에는 110억 5800만원까지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100억원대를 넘어섰고, 다음날인 23일에는 14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반대매매가 100억원을 넘긴 날은 단 9거래일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0.53% 하락했다. 이날도 국내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8%대 하락하면서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

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이날 발동한 1단계에서는 모든 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린 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

을 매입한다. 이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빛투'가 증가할수록 주식시장 내 반대매매가 확산될 리스크도 높아진다. 지금처럼 증시가 폭락하는 시점에서는 지수 하락이 반대매매를 발생시키고, 반대매매로 하락 폭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시 폭락 후 반대매매, 투매 등이 나오면서 하방이 더욱 자극됐다"면서도 "미국의 경기침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급락했는데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장기간 20조원대를 머물렀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으로, 잔고가 늘수록 '빛투'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초(1월

2일 기준) 17조537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이달 1일 기준 19조516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는 7거래일 내내 20조원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1일 기준 신용융자잔액은 코스피는 10조9250억원, 코스닥은 8조590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반대매매 공포감도 커질 전망이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낮아진 시장 눈높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시 빠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안전자산 찾는 투자자... 금 가격 상승세

일주일새 금 가격 130달러 ↑ 시장선 추가적인 상승 전망도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격화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일 온스당 2469.8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직전 최고치(지난 1일 온스당 2506.60달러)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금 가격은 2500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130달러 이상 상승했다.

지난 1월2일 2073.4달러에서 출발한 금값은 올해 21.6%(449.10달러) 올랐다. 금 가격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전쟁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 했지만, 9월 이후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금 수요가 높아졌다.

금 가격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금

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이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정책 등의 공약이 세계 정치·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이 헤지(위험회피)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치는 10% 넘게 하락했지만 금 현물 가격은 5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키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됐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적 보복'을 지시하는 등 5차중동 전쟁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대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투자처이다. 전쟁 이슈들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치의 변동이 심한 주식이나 채권, 통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값 상승 원인은 불확실한 금융시장보다 안전자산 투자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금값이 고점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 추가적 상승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상황별 대응 계획)

이른바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 동요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정부-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재부는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증가 대비 8% 넘게 주저앉은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서 주식 거래를 20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앞서 오전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미국발 침체 우려에 더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까지 부상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및 관계기관 회의 등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아시아에서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된 직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역대 3번째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5일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대폭락장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8%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Sidecar)'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까지 동반 발동됐다. 국내 양대 지수를 대상으로 두 조치가 동시 발동한 것은 약 4년 5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00분 20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후 1시5분19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는 시

장의 초기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하지만 양대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이 8% 넘게 내리고,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도 8% 이상 추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이 급락할 때보다 강력하게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발동되는데 서킷브레이커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1단계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3단계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고 3단계에 이르면 발동시점 기준 모든 주

식거래가 종료된다.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이날 코스닥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오후 2시 16분, 오후 2시 34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서킷브레이커 해제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고 이후 정상적으로 체결이 이뤄진다. 제도가 도입된 후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였고, 코스닥에서는 열 번째였다.

이렇게 코스닥·코스피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은 역대 3 번째다. 최초는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직후 발동됐고, 두 번째 발동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발동된 바 있다. /하정윤 기자 zelkova@